



EMERiCs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://www.emerics.org/ 2018. 07. 13. 인도·남아시아	「이슈&트렌드」 14가지 주요 작물에 대한 ‘최소지원가(MSP)’ 인상의 배경 및 시사점 작성 김도연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)
---	---

- 인도 정부는 2018년 7월 4일 주요 작물 14가지에 대한 2018/19년 최소지원가(Minimum Support Prices)¹⁾를 경작 비용의 1.5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함.
- 해당 곡물은 칼리프(Kharif) 작물이며, 인도정부는 매년 파종 시기에 맞춰 MSP를 발표함.²⁾
 - 이번 MSP은 현 정부 임기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인(평균 24%)으로, 2017/18년 대비 해바라기씨는 31.42%, 수수는 36.84%, 쌀 옥수수는 42.94%가 증액됨.

표 1. 2018-19년도 칼리프 작물 MSP 인상 내용

단위 : 루피/100k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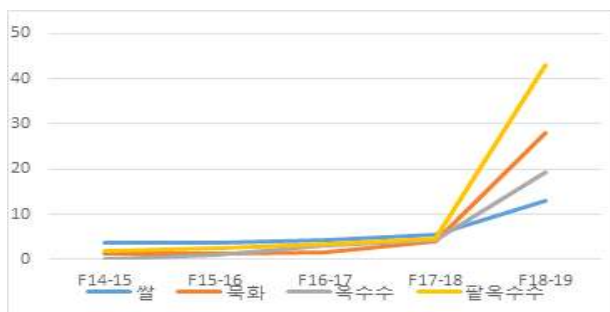
상품	벼	팔옥수수	수수	조	옥수수*	나무공	녹두	렌틸콩	땅콩	해바라기씨	대두콩	참깨	영강퀴씨	목화*
경작비용*	1219	-	-	-	1062	3309	5256	-	3570	-	-	-	-	3909
2017-18 MSP	1550	1700	1425	1900	1425	5450	5575	5400	4450	4100	3050	5300	4050	4320
2018-19 MSP	1750	2430	1950	2897	1700	5675	6975	5600	4890	5388	3399	6249	5877	5450
인상분 (%)	200 (12.90)	730 (42.94)	525 (36.84)	997 (52.47)	275 (19.30)	225 (4.13)	1400 (25.11)	200 (3.70)	440 (9.89)	1288 (31.42)	349 (11.44)	949 (17.91)	1827 (45.11)	1130 (26.16)

주: 경작비용은 안드라 프라데쉬, 마하라슈트라, 우타르 프라데쉬 등 주요 농업지역의 2014년도 추정치임.

목화는 장모(long staple) 종에 대한 수치임. Agriwatch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7월 13일 기준 뉴델리 실물시장에서 1270루피(100kg)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됨.

자료: 인도농업부(검색일:2018.7.9.),

그림1. MSP 인상 추이(%)



자료 : 인도농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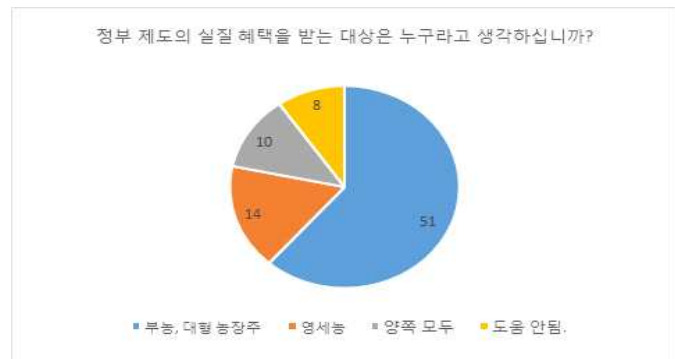
- 이번 MSP 인상의 배경으로는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해 농가에 만연한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과 2019년 5월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입지 확보로 분석됨.

- 인도 총 인구의 약 70%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, 45%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 및 정치(선거)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.³⁾

- 1) MSP는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작물을 구매하는 가격으로, 농산물의 가격 급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1965년 녹색혁명 시기에 도입함. 현재 총 24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이 MSP 아래로 떨어질 때는 수량에 제한 없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2) 칼리프(Kharif) 작물은 몬순 작물이라고도 하며, 인도 몬순(우기)에 파종해 재배 및 수확하는 것으로 MSP는 농작물에 대한 토지 할당, 생산량 등과 관련하여 농민에게 영향을 미침.
- 3) 2014년 총선에서 모디는 ‘2022년까지 농가 소득이 2배가 되는 시대’를 만들겠다고 주창, BJP는 인도 최대 인구

- 하지만 그간 농촌 지역에 대한 뚜렷한 지원 및 공약 이행이 되지 않아 농민들은 모디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.
- 지난 1월 농민들은 단체를 조성에 'Green Paper on Farmers, Farming and Rural Economy 2018'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, △최근 4년 동안 농업

그림 2. 정부 제도에 대한 농민 인식



자료: :LOkniti

분야의 공공투자가 지속 감소, △ 2017년까지 예정한 23개 관개시설 공사 중 4개만 진행, △농업 종사자의 부채 탕감 지원정책을 주 정부가 처리하도록 책임을 면피하는 등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실패 사례를 고발⁴⁾

- 또한 지난 5월 카이라나(우타르 프라데쉬) 보궐선거 또한 지역야당인 RLD가 승리함⁵⁾.

□ 인도 내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2019년 총선을 고려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.

- SBI(State Bank of India)은 이번 MSP의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0.5~1% 상승, 재정적자는 GDP 대비 0.1~0.2% 포인트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
- NITI Ayog는 4천7백억 루피(약 7조 5백억 원)의 추가 정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며, HDFC 은행 관계자는 2019회계연도 인플레이션을 5%에서 5.3%로 상향 조정
- 인도의 많은 농민 및 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프라 구축, 농촌 금융 시스템 정비 등 장기적 관점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, 다가오는 주의회 선거 및 총선을 의식한 모디 정부는 일단 농가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
- 모디 총리는 7월 18일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인도 최대의 목화 생산지인 말라우(편잡), 최대 곡창지 중 하나인 미드나포르(웨스트 벵갈)를 방문해 농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음.

EMERICs

참고자료

인도 농업부, 선거위원회, Economic Times 등

가 살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80석 의석 중 73석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.

4) Live mint. Farmers have no expectations for budget 2018 ([검색일](#) 2018년 7월 10일)

5) Election Commission of India([검색일](#): 2018.7.11.).

대통령 인도 국민방문 계기 한-인도 경제협력 성과

- 한-인도 CEPA 개선협상, 조기성과 도출 합의(공동선언문 서명)
- 한-인도 정부간 MOU 2건, 기관간 MOU 4건, 민간 MOU 2건 체결
 - o 정부간 : 미래비전전략그룹(4차협력), 무역구제 협력 MOU
 - o 기관간 : 산업고도화, 경제협력 확대, 스타트업 지원 협력, 에너지신산업 MOU
 - o 민 간 : KB-바로다 금융협력 MOU, 오토젠-마힌드라&마힌드라 경량화 협력 MOU
- 한-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, K-Globlal @ India 2018 등 경제행사 개최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양국은 ①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, 피마자유, 농수산물가공품 등을, 인도는 우리에게 합성고무,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, ②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·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, ③원산지 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합의.

- o 한-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,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,

-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,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